

「샌프란시스코 AI서밋」 개최 계기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글로벌 AI투자 이니셔티브 추진

- 빅테크와 전략적 투자협력 확대로 3대 메가프로젝트(6.29) 성과 창출 본격화
- 대체불가 글로벌 AI공급망 핵심국, 세계 AI시장 창출을 주도하는 글로벌허브 도약
- 서밋 계기, 총 9,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공급생산 협력, 5GW 규모 AIDC 구축협력 등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4일(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혁명의 주역인 국내외 대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AI서밋」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내) 이재용 회장(삼성), 최태원 회장(SK), 정의선 회장(현대차그룹), 이해진 의장(네이버)
(해외) 젠슨 황 CEO(엔비디아), 혹 탄 CEO(브로드컴), 샘 알트만 CEO(오픈AI), 다리오 아모데이 CEO(엔트로픽)

첨단기술의 요람이자, 글로벌 AI혁명을 주도하는 빅테크와 유망스타트업의 본거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이번 서밋은 현 시대 최고의 AI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AI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한 대규모 AI투자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선언’을 통해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AI공급망 핵심거점으로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AI역량과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대한민국과의 협력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어진 ‘글로벌 AI리더 대화’ 세션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최태원 SK 회장, 혹 탄 브로드컴 CEO,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샘 알트만 오픈AI CEO, 이해진 네이버 의장,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참여하여 반도체 공급·생산 협력, AI 인프라 구축 확대 및 퍼지컬AI 개발·확산 등 AI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내외 기업 간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도 영상으로 참석하여 AI인프라, 차세대 AI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한국과의 반도체, AI인프라 분야 협력을 통한 글로벌 AI발전과 확산의지를 밝혔다.

이번 서밋을 계기로 국내기업-해외 빅테크 간 6건*의 협약 체결을 진행하였으며, 총 9,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공급·생산 협력, 5GW 규모 AIDC 구축 협력 등 대규모 성과를 창출하였다. 협약 체결로 양국 기업 간 협력이 더욱 공고화되고, 실질적인 기술·인프라협력에서부터 대규모 글로벌 자본 유치까지 협력이 다양화·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①삼성전자-브로드컴: 5년간('26~'30) 메모리반도체 및 파운드리 관련 2,000억\$ 규모 협력
- * ②삼성SDS-엔트로픽: AI 신규시장 공동발굴 및 응용 AI엔지니어 양성 파트너십 체결
- * ③SK(SK하이닉스, SKT)-엔비디아 : 메모리 반도체 구매 협력, 최대 2GW AIDC 구축·확장 협력 등 총 5,000억\$
 - ④SK(SK하이닉스)-MS : 메모리 반도체 구매 협력
 - ⑤SKT-엔트로픽 : GW급 AIDC프로젝트 투자 및 협력 등
- * ⑥네이버-엔비디아: 글로벌 AI팩토리 구축 투자협약 및 인프라 공급 계약 등 총 100억\$

먼저, 삼성은 브로드컴과 올해부터 5년간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엔트로픽과는 AI 신규시장 공동발굴, 응용 AI엔지니어 인력의 양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지난 6월,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회'에서 '29년까지 5GW규모의 대규모 AIDC 투자계획을 발표했던 SK(SKT/SK하이닉스)는 아시아 AI인프라 거점으로서 한국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엔트로픽과 함께 국내 기가와트급 AIDC 프로젝트 투자·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엔비디아와는 최대 2GW규모의 AIDC 구축·확장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신 GPU 베라루빈 시스템의 우선 할당과 첨단메모리 반도체 공급 등 총 5,000억불 규모의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SK는 급증하는 AI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MS AIDC에 중장기적으로 공급하는 메모리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울산 AIDC 공동 구축을 통해 축적한 AWS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 기가와트급 AIDC 확장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투자 협약, 글로벌 투자기업 브룩필드와 인프라 공급 계약 등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글로벌 AI 팩토리 확장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GPU 공급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또한, 네이버는 투자사 브룩필드로부터 최대 90억 달러의 지원 확보를 통해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운용에 필요한 안정적인 인프라와 공급망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AI 팩토리의 글로벌 사업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역량·로보틱스·데이터를 기반으로 빅테크와 기술 제휴를 통해 도시 단위 통합 지능화라는 피지컬 AI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엔비디아와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공동 구축을 통한 대학·스타트업 개발 지원 계획, 웨이모와는 혁신적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 협업 계획 등을 발표하는 한편, 새만금 AI 밸리 등의 투자를 통한 국내 피지컬 AI 전략 거점 육성 계획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서밋에서 한자리에 좀처럼 보기 힘든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여 우리기업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AI공급망의 핵심 축인 대한민국 AI의 높은 세계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오늘 구체화된 국내기업-해외 빅테크 간 대규모 AI투자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통령께서 밝히신 ‘샌프란시스코 AI선언’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대한민국이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공진호 (044-202-6270)
		담당자	서기관 이재호 (044-202-6271)
			사무관 정다연 (044-202-6283)
			주무관 정채연 (044-202-6292)
담당 부서 <행사지원>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인공지능전환지원과	책임자	과 장 강창목 (044-202-4940)
		담당자	사무관 김세림 (044-202-6359)
			사무관 장영재 (044-202-6141)
			사무관 배준기 (044-202-647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